



복음나누기

연중 제19주일(8월 13일)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33)



베드로와 예수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8. 10.)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마태 14,31-32)

깜깜한 밤의 풍랑은 자연의 위협, 악의 세력,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세상 안에서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0번 “믿음으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믿음을 더해주시시오.
- 주님, 저희가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2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예수님께서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29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하고 소리를 질렀다. 31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다. 32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고, 거룩한 곳을 찾아 듣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께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당신은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보고 열광하는 신앙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쩌면 당신께 열광하는 군중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일깨워주시는 듯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겠지요. 내 마음에 들면 믿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뒤에야/진계유

고요히 안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림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480번 "믿음으로" 3절과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궁금했어요

전례주년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례주년 안에서 교회는 강생에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거행한다. 아울러 정해진 날에 교회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도 기억한다.

해설

전례주년 곧 대림 시기로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는 우선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 하나를 전체적인 관련성 안에서 경축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여러 축일도 경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 조명된다. 성인 축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들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 곧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이므로 전례주년의 큰 틀 안에서 기리게 된다.

용어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의 가장 빛나는 칭호다. 마리아는 복된 분이며(루카 1,42,48). 하느님의 어머니(루카 1,43 참조)로 공경받는다. 복되신 마리아, 천주의 성모 축일은 성탄 8일 축제의 끝인 1월 1일에 지낸다.

시간 전례란 무엇인가?

교회의 공적이며 통상적 기도인 시간 전례(성무일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시간 전례를 통하여 매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 기도는 주로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 그리고 교부들과 영성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오늘 하루는 거룩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데 매우 좋은 시간이다. 교회는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시간 전례를 마련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루카 18, 1 이하)과, 사도(1테살 5,17)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시간 전례는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삼시경·육시경·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로 되어 있다.

용어

시간 전례 또는 성무일도

시간 전례 또한 전례 곧 온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인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다. 성무일도(거룩한 업무)라고 한 것은 성직자들이 매일 꼭 바쳐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왔지만, 이제는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바쳐야 하는 전례적 기도 이므로 '시간 전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교부들과 영성가들

초기 교회의 스승이자 저술가들을 교부라 부르며, 성령 안에 새 삶을 산 거룩한 사람들을 영성가라고 부른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